그래피티가 강렬하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골목길에 문이 나있다.

어릴 때 가지고 싶었던 나만 아는 위험한 비밀기지같다.

집의 기능과 형태를 상실했지만 구조가 그대로 남고 최근에 유행하기도 했던 콘크리트벽이 힙해보여 독특한 인상을 준다.

아직까지 장소가 정돈되지 않아서 이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진다.

곰팡이가 많고

무섭다.

이 그래피티는 언제 누가 그렸을까?